

지역 소식통

정읍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집중 점검 추진

정읍시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16일부터 23일까지 관내 동물병원 8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운영 실태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은 출장 전문 진료 병원과 연구 기관 부속 병원을 제외한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최근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 의무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해당 항목들이 규정에 맞게 잘 게시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읍시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누리집(홈페이지)을 포함한 진찰 등 진료 비용의 게시 여부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동의 이행 여부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환경친화적

위생 해충 방역 추진

부안군은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친화적 위생 해충 방역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하절기 방역소독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실시하며 오는 5월부터는 집중 방역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부안읍 시가지와 취약지, 밀집주택지 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 2~3회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방역소독 특별기동반을 편성해 방역취약지 일원에서 유충구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자율방역 사업도 시행한다.

대상은 지역자율방재단, 마을 이장, 마을 자율방역단, 15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 대표자이고 신청 후 간단한 사용 교육을 거쳐 방역약품을 충전한 후 장비를 대여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팀 ☎ 063-58073188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27일부터 1차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60만원·차상위·한부모가족 50만원

내달 18일부터 2차 일반군민 1인당 25만원 지급...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부안군이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부안군은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부담에 대응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중동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을 우선 보호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원금은 오는 27일부터 1차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1인당 60만원, 차

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어 2차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오는 5월 18일부터 1인당 2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부안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군민 편의를 높였다. 지원금은 관내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과 애플리케이션, 부안사랑상품권 플랫폼 '고창사랑페이'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인근 은행 영업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또한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군민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병행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 선정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주관, 약 5000만원 규모 사업비 전액 지원
3000필지 대상 정밀조사... 무단점유 해소·숨은 자산 발굴 총력

정읍시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LOFA)가 주관하는 '2026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컨설팅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시민의 자산을 꼼꼼히 지키는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는 시비 부담 없이 약 5000만원 규모의 사업비 전액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을 높

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끌어올릴 맞춤형 전문 상담(컨설팅)과 정밀 조사를 진행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시가 관리 중인 공유재산 가운데 총 3000필지다. 그동안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드론 및 항공 사진 분석과 현장 실사를 병행하는 선진 조사 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 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무단 점유 및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철저히 발굴하는 이달 중 사전 전문 상담(컨설팅)을 시작으로 전문 조사 기관과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모든 실태조사와 정보망(데이터베이스)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조사 결과 확인된 무단 점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 체결 등 적법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활용 가치가 높은 유휴 자산은 주요 정책 사업과 연계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2026년 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 성료

교육 비전 공유·학부모 중심 소통·협력 체계 강화 및 신입 인원 선출 등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지난 14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고창 학부모회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학부모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협의회를 이끌어갈 신입 임원(회장 김대화 외 4명)을 선출했으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학부모 자치 활동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한숙경 교육장은 2026. 고창 교육계획 및 학부모의 역할을 안내하는 등 학부모회장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직접 주관한 청렴 특강을 통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고창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학부모회장들은 고창교육지원청 소속 영어체험학습센터와 고창도서관

(세움) 시설을 견학하며, 아이들이 이용하는 교육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국가유공자 노후 주택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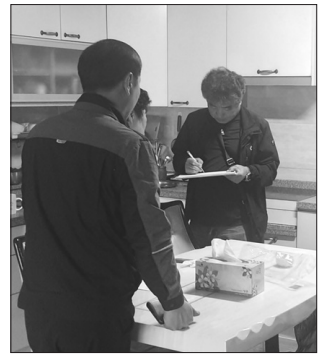
25가구 최종 선정 맞춤형 집수리 돌입... 10월까지 완료 예정

정읍시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안락한 노후를 돕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자 25가구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맞춤형 집수리에 돌입한다.

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은 뒤 신청자의 연령,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가구 유형, 거주 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 25가구를 최종 확정했다.

총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가구당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도배, 장판, 싱크대·창호 교체 등 주택 내부의 소규모 수선을 알차게 지원한다.

시는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해 현재 거주 환경의 상태와 거주자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각 가구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집수리를 진행해 오는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안전하게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는 매년 추진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외에도 의료비 지원, 위문품 전달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등 다채로운 보훈 시책을 꾸준히 펼치며 보훈 가족 예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첫 회의

향후 사업 추진 방향·협력 체계구축 논의 등

고창군이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구성하고 15일 군청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군 관계 부서를 비롯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중간지원조직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추진 방향과 협력 체계구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고창군은 이번 추진단 구성을 통해 행정, 공공기관, 금융, 중간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모사업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사업 개요 및 공모

추진 전략 △기관별 역할 분담 △주민 참여 확대 방안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갈등 요인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과 참여가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홍보 및 설명회 확대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한편, 고창군은 앞으로 읍·면 단위 설명회 개최, 참여 희망 마을 발굴, 사업계획 구체화 등을 통해 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계절근로자 입국률 '전북 상위권'

모내기·감자 수확철 앞두고 1800명 입국 완료

'중동전쟁' 등으로 전세계가 항공대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창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모내기과 감자 수확철을 앞두고 앞두고 1800명이 입국을 완료하며 선방하고 있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유치 예정인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3000명으로, 현재 1800명(60%)이 입국을 완료하며 전북 시·군 가운데 입국률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고창군은 악조건 속에서도 송출국과

간밀히 협력해 근로자 입국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4월16일 라오스 근로자 36명을 시작으로 22일까지 총 419명이 추가 입국할 예정이며, 4월 말까지 총 2550명(85%) 입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송출국 근로자가 중국 등을 경유해 입국한 사례와 같이, 제3국 경유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근로자 입국을 최대한 앞당기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